



당신의 시대, 이제는 통일이다!



**이슈 in 통일**  
최근 한 달간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주요 소식 및 이슈 모음



**누아씨(NUAC)가 간다**  
해외동포  
청소년들의 역사·통일 견학



**당신이 통일주인공**  
전기기술장 김용남 씨의  
멋진 이중생활



**통일돋보기**  
통일 한국은  
농·임업 강국?



**통일 웹툰**  
통일한국의 8·15광복  
횡단열차 페스티벌



그리움으로 물들인  
(향수)의 본향  
충북 옥천



북한 별미  
연잎쌈



[이벤트②] '북한어-남한어' 연결이 잘못된 것은?



민주평통365일  
NUAC News



앱 설치하기



지난호 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 신청



구독 해지



웹진개선의견

# 첫 시험을 무난히 넘긴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정책: 안보와 평화는 대책 개념이 아니다

차 두 현(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문재인 대통령은 7월 6일 독일의 코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일명 '베를린 구상'이라 불리는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총체적 난국(perfect storm)'.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의 통일·외교정책 여건을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던 단어다. 그만큼 새 정부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과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상황에서 첫 걸음을 내디뎌야 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실종된 정상외교와 그로 인한 정책협조의 불투명성, 한·중 간 사드 갈등,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초 등장 등은 모두 우리의 대북·통일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국제사회에서 전개하는 데 있어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여건들이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능력시위는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한 달 동안에만 4차례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하면서 '핵 보유국' 지위 획득에 대한 미망(迷妄)을 버리지 않았다. 주변국들의 전략적 경쟁과 이기적인 손익계산, 북한의 지속적인 일탈과 도발은 자칫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입지를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여건들이었다.

출범 후 3개월째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다중적 난제들을 비교적 무난하게 돌파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발 빠른 특사외교를 통해 한·중·일 등 주변국과 EU, 독일, 아세안 등 국제사회의 주요 세력들과의 협력 및 공조관계를 다지는 한편, 6월 30일(미국 현지시각)의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입장에 대한 공감을 미국으로부터 이끌어냈다.





평화와 안보가 각기 동떨어진 차원의 지향이 아니며,  
이는 균형적으로 병행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주변국 메시지는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주목하게 한다.



▲ 지난 6일 G20 정상회의 참석\_한·미·일 정상 만찬

이러한 분위기는 7월 초에 개최된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또한, G-20 정상회의 참석 기간 중 발표된 『베를린 구상』(독일 현지시각 7월 6일)은 ① 한반도에서의 평화추구 ② 북한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③ 비핵화 과정과 연계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④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형성 ⑤ 비정치적 교류·협력의 일관성 있는 추진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 비전 제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물론 새 정부가 치른 첫 시험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적 행위 때문이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발표되기 이틀 전인 7월 4일 대륙간탄도탄(ICBM)급 미사일인 ‘화성-14호’를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우리 정부가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 성격을 띠는 남북 적십자 회담과 남북 군사회담을 동시 제의(7월 17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이에 침묵으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회담의 개최 시점으로 제의한 7월 27일의 하루 뒤에는 ‘화성-14호’를 재차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오히려 증폭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미온적 반응 역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요인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수사적인 비난이나 자제 강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평양의 태도를 변화시킬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미온적이었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저울질 하는 태도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도전요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안은 명쾌하게 나타났다. 북한의 ‘화성-14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자체의 진보된 미사일 기술을 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드 추가 발사대의 임시 배치 등 신속한 안보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자신감을 가진 대북·통일정책의 원동력은  
국내적 공감대와 소통의 확산이다.

북한의 호응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도발 자체에 대해서는 이에 걸맞은 단호한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결국, 이는 기계적으로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주장해 온 일부 주변국들의 논리를 궁색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그 동안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이 지닌 한계의 하나는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안보와 대화의 분위기를 불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양상을 취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적이 많았다는 점이다. 평화와 안보가 각기 동떨어진 차원의 지향이 아니며, 이는 균형적으로 병행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주변국 메시지는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주목하게 한다.



▲ 북한은 지난 7월 28일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물론 이러한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 역시 지속적으로 견지될 필요가 있다.

첫째, '조급함'으로부터의 탈피이다. 2016년부터 가속화되어 온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시위는 그들의 집착과 나름의 초조함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양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짐짓 태연함을 유지하며 오히려 우리를 자신들의 협상의제로 끌어들이려 부심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초연한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외적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현재 추구하고 있는 국제적 제재의 공조는 북한 정권이나 체제를 위기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양의 태도변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압축적인 공동의 압력이 가해져야 함을 주변국들에 역설해 나가야 한다.

셋째, 자신감을 가진 대북·통일정책의 원동력은 국내적 공감대와 소통의 확산이다. 이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각기 모여 '나'만의 의제를 이야기하는 데에서 벗어나 '우리'의 공통 방안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판을 형성하는 것 역시 정부의 주요한 몫이다. 첫 시험을 무난히 통과한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의 지속적인 순항을 기대해 본다.

〈사진자료: 청와대, 연합뉴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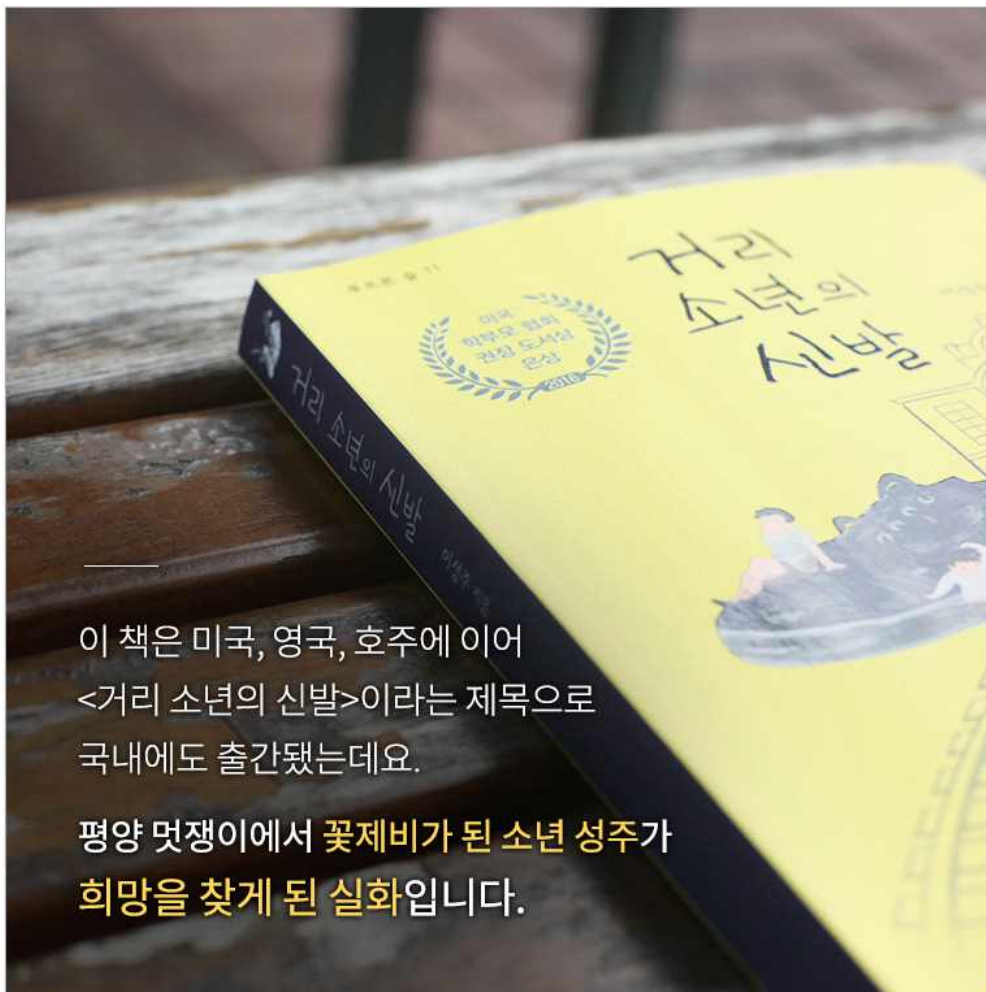


“제 꿈은  
**Conflict Resolution,**  
통일입니다.”

<거리 소년의 신발> 저자 **이성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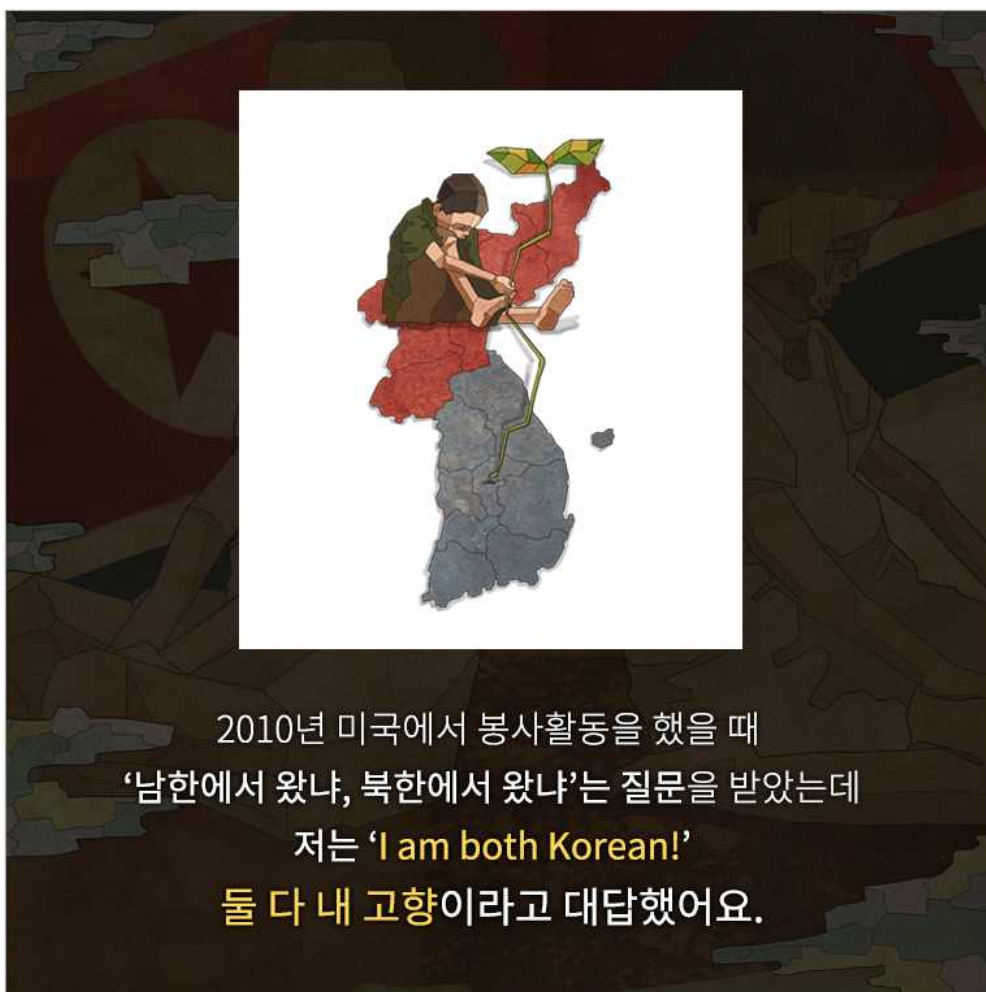


얼마 전 미국에서 화제가 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Every Falling Star>  
탈북민 이성주 씨가 쓴 실화 소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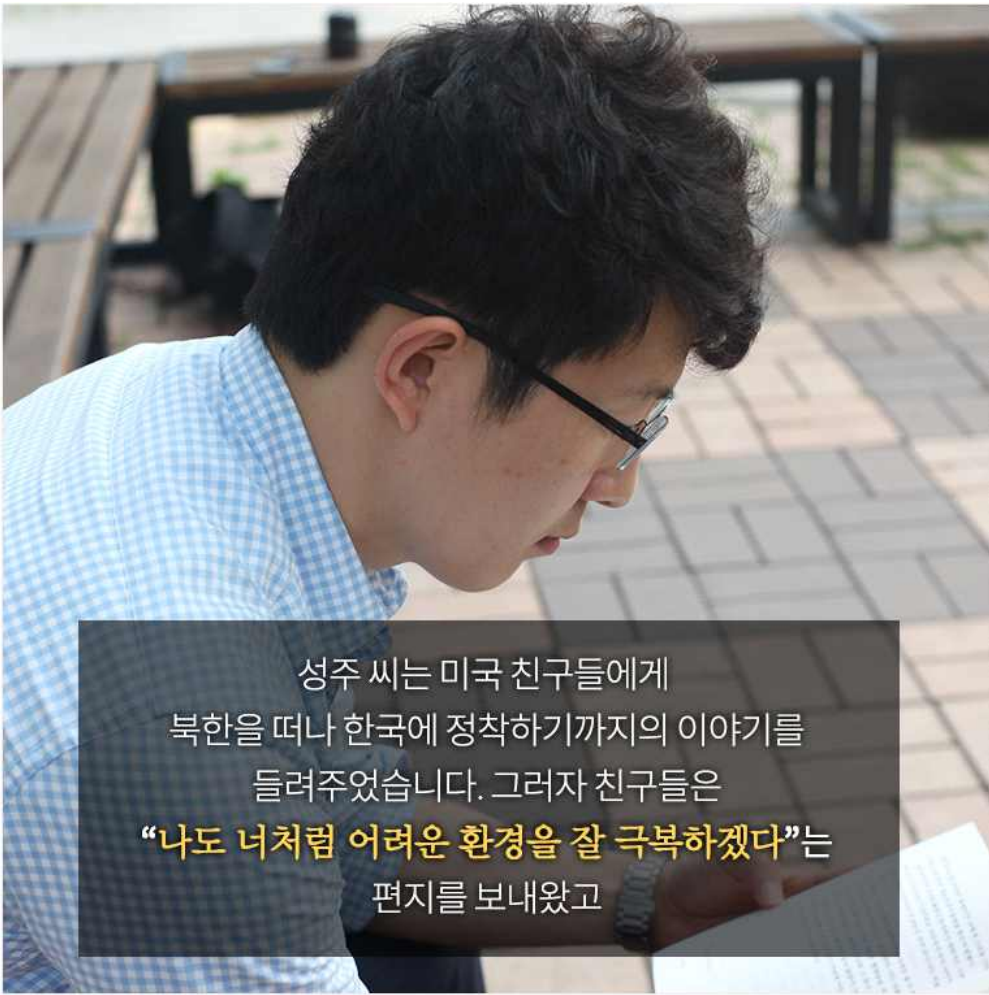
이 책은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거리 소년의 신발>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도 출간됐는데요.

평양 멋쟁이에서 꽃제비가 된 소년 성주가  
희망을 찾게 된 실화입니다.



2010년 미국에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I am both Korean!  
둘 다 내 고향이라고 대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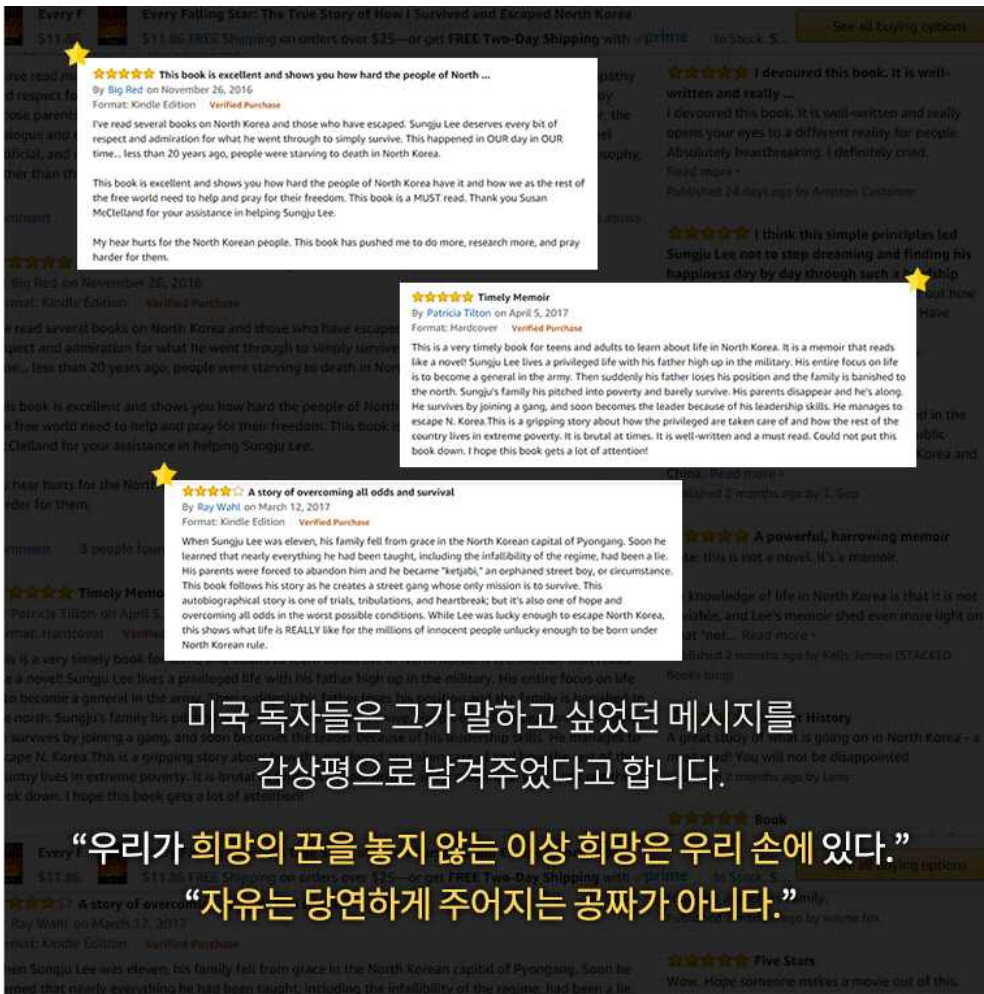




성주 씨는 미국 친구들에게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나도 너처럼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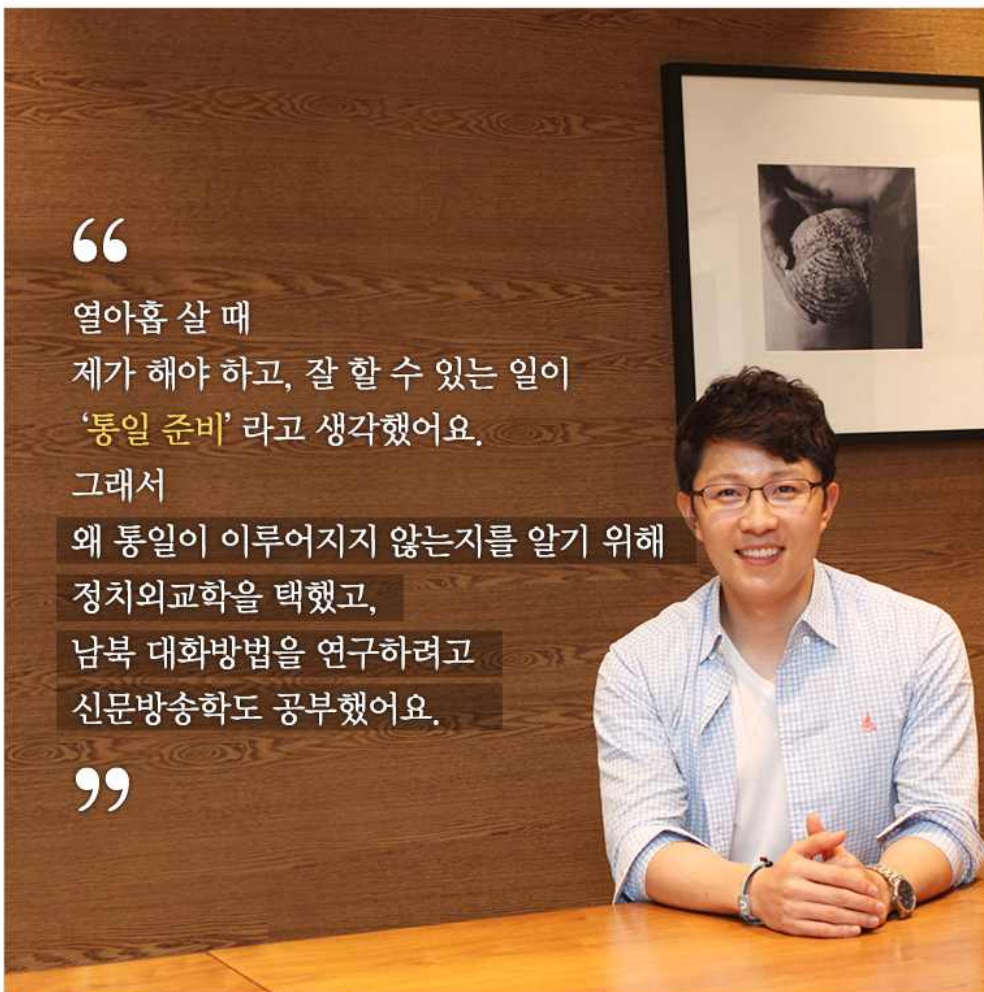
이후 2014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강연을 하게 된 성주 씨는  
수잔 맥컬린이라는 작가의 제안으로  
미국 청소년 도서 **<Every Falling Star>**를  
출간하게 된 것인데요.



미국 독자들은 그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감상평으로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상 희망은 우리 손에 있다.”

“자유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게 ‘답’을 찾아 시작한 공부는  
국제관계에 대한 석사과정으로 이어졌고  
졸업 후에는 **캐나다 하원 부의장  
베리 드볼린의 인턴보좌관**을 지내며  
**북한인권결의안 발의**에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인권시민연합회에서 **재중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브로커 비용 때문에 한국에서도 가난을 겪는  
탈북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부자들을  
찾는 일이라고 합니다.



“  
가장 확실한 통일 준비는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북한 시장을 활성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 시장은 항상  
정권의 힘과 반비례하거든요.  
”



그는 한국 사람들이 탈북민과  
친구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통이 곧 2천4백만 사람들과 통일을 이루는  
밑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살아남은 실제 이야기.  
이 책을 북한에 남아 있는 분들께 바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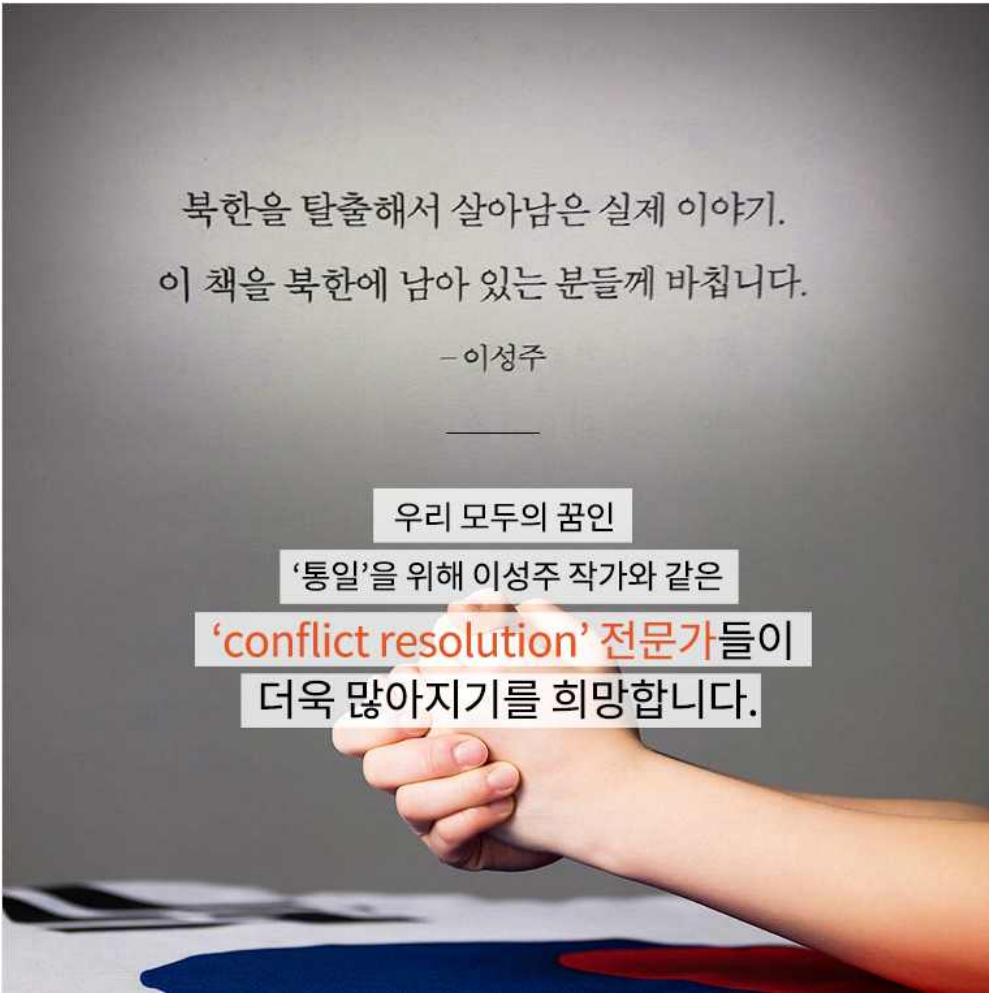
- 이성주

우리 모두의 꿈인

'통일'을 위해 이성주 작가와 같은

'conflict resolution' 전문가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 말뿐인 북한의 무상치료제

이준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남한은 유상치료제, 북한은 무상치료제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의료정책이 우월해 보이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조상들께서 가르쳐주지 않았겠는가.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북한 헌법의 보건정책 목표가 실제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

북한은 1980년 4월 채택된 인민보건법을 통해 △전반적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적 방침 △고려의학(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배합 등의 보건료정책 기초를 마련했다. 시·군 인민병원의 진료과목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과, 가족상담과, 종합시험검사과, 약재과(약국), 고려수기과(안마), 고려내과(한방약), 고려침구과(한방침), 구강분원(치과) 등이 있다. 리(면)·동 진료소의 진료과목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고려치료과, 구강과 등이 있다.

북한의 보건제도는 사실상의 예방의학이다. 김일성의 로작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이란 논문에서 “사회주의 의학은 본질에 있어서 예방의학”이라고 제시하였고 그것이 곧 정책으로 이어졌다.



북한에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환자들에게 치료 목적의 뇌물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한 것이다. 아프리카의 빈곤한 나라들에서 산부인과나 외과 의사 ‘대접받는 다’는 인식이 각인된 것처럼 일종의 ‘단기 탈북의사’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의료보건체계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이며,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쟁체제로 하여금 서비스의 질 향상에 집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북한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이 없어 거주지에 기반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상급병원 파송제를 실시하는 등 의료체계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남한은 1953년에 국민의료법을 제정하고 양한방의 일원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가는 국민 개인이 소득의 일부를 부담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거나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치료를 받는다.



##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 북한 의술

2012년 어느 여름 밤, 평양의 서성구역 도로변에서 자전거를 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자전거에는 운전자와 한 청년이 짐칸에 타고 있었는데, 승합차에 치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모란봉에 있는 평양 제1인민병원으로 실려 갔다.

구급과 당직 의사들이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해보니 피를 많이 흘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일단 사체실로 옮겼다. 의사는 사고처리를 위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두 명의 신분증을 꺼냈고, 자전거를 운전하던 사람은 보통강구역 당 조직 부원, 뒤에 탄 30대 청년은 평양시당 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결과 40여 분만에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만 진료하는 봉화진료소에서 구급차로 청년을 후송해 갔고, 깜짝 놀란 의사는 남은 남성을 사체실에서 꺼내 산소호흡기를 달아놓았지만 새벽 3시 숨을 거뒀다. 북한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책임감보다 야근 시 겪게 되는 피범벅 사고를 ‘소름 돋는 일진’ 쯤으로 여기는 모습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명감의 정도를 엿볼 수 있다.



▲ 북한 옥류아동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

그런데 새벽 4시 봉화 진료소 구급과에는 뜻밖에 김정은이 찾아왔다. 김정은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의식 없는 청년을 가리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내라, 최씨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봉화 진료소 의료일꾼들은 한 달 12일 만에 청년을 살려냈고, 안정치료를 거듭하다가 2013년 청년을 싱가포르로 보내 떨어진 고막수술까지 받도록 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명령이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 힘을 보여준 셈이다. 죽다가 살아난 30대 청년은 바로 북한의 ‘백두혈통’을 지키는 문지기의 화신 최룡해(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외아들 최현철이었다.

## 휘발유 값을 내야 출동하는 119구급차



▲ 지난해 평양순안국제공항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구급차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119구급차가 사람이 죽어가니 길을 내라고 고성을 지르며 내달리고, 앞서있던 차들이 “생명이 위급하구나” 하고 비켜주는 감동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서해 섬에서는 한 어르신이 딸의 출산이 임박하여 119헬리콥터를 타고 육지에 도착한 후 사실대로 말해 벌금을 문적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북한에 있을 때 필자는 남조선이 돈이 판치는 사회라고 들었다. 하지만 119구급차가 무상(국민건강보험으로 대치)이라는 사실과, 실손보험 이용 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해 80%를 돌려받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에도 큰 병원에는 구급차가 2~3대씩 있다. 그러나 절대 무상치료가 아니다. 90년대 초까지는 어느 정도 무상으로 운영됐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는 휘발유표 1장(약 20달러)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다.

소문난 평양산원도 기존에는 구급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90년대 이후에는 휘발유를 준비해놓아야 온다고 하여 “아기를 임신하지 말고 휘발유를 임신해야 오는 구급차”란 시대가 등장하기도 했다. 제도는 무상인데 실생활에서는 유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다.

## 돈의 두께는 생명의 길이?

북한에도 100살 장수자가 있다. 장수는 북한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물론 사람의 명이 타고난 운명이라는 것을 의심할 바는 없지만, 100세 생일을 맞으면 노동당의 명의로 ‘100세 선물상’을 차려주며 장수자의 생명 가치를 체제효과 홍보용으로 도둑질한다.

북한은 지역별 의료체제로 운영된다. 중앙병원에 가려면 주거지 말단 병원에서부터 ‘파송증’을 받아야 한다. 주거지에 등록된 사람은 자기 주거지에서 치료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선 치료, 후 파송증을 제출하는 특혜를 받는다. 권력자나 돈 있는 사람들은 규정 밖의 의료범주에 속해있는 것이다.



물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암'과 같은 불치병 앞에서는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서러움에 두려움은 배가 된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달 만에 사망하기도 한다. "돈이 많아 걸린 '암'은 시한부라는 구매속도도 빠르다"는 비아냥 유머가 생겨난 이유다.

북한에서도 약국에 가면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비싼 의약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병원에 입원해도 의사는 처방만 해줄 뿐, 약은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들의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만 서민들은 민간요법이나 아편 같은 순간의 고통을 멈추는 '마약'에 의존하는 일이 많다.

남북한의 평균수명만 봐도 두 사회의 '돈 두께'가 확연하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남조선은 아프면 돈이 많이 들어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선전한다. 북한의 최고위급 전용병원인 '봉화진료소'와 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은병원',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만 있는 MRI첨단의료기가 2000년대 남북경제협력기 활성화될 때 한국에서 기증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의료 수준은 곧 국가 경제력 높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무상치료제는 사실상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이 인체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는 것은 세 살 난 아이도 안다. 고로 경제의 피해함이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는 것도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다. 남한 다이어트맨들이 꿈꾸는 '몸매'를 그냥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북한 체험 한 달이면 다이어트에 실패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도 질병예방을 하고 있지만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식수의 소독도 엉망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오염된 하천에서 잡은 물고기가 시장에서 위생검역도 받지 않고 버젓이 파는 이곳에서, 오염된 물고기를 먹고 병에 걸리는 것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 평양 옥류아동병원 전경

평양에서는 겨울이 오면 더 많은 눈이 내려 차사고 열풍이 일어나길 바라는 차 수리 업체들의 고약한 심리도 작용한다. 북한 의사들이 북한의 경제가 피해해 환자가 많아지는 것을 돈 벌이 기회로 여기지는 않는지 내심 걱정도 되는 이유다.

해외에 파견되는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난다는 것을 잘 아는 북한 의사들이 '무상 치료'보다 '유상치료'를 더 선호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한은 정책적으로 '세금 없는 나라', '무상교육', '무상치료'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무너진 정책 앞에 돈을 받고 치료를 공식적으로 해주길 바라는 의사들의 절실한 요구를 언제까지 외면하려는지 난감하기만 하다.

## 남북한 의료보건 통합이 가져다줄 생명의 길이

한민족이라 할 때 반만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들은 분명 하나의 핏줄로 이어지고, 하나의 언어를 쓰며 사랑과 정으로 살았다. 슬한 외세침략을 물어내며 강토를 지키고 민족을 지켜온 조상들 앞에 후대들이 이어가야하는 것은 강토와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전도 아닐까 싶다.

경제를 외면하고 국방에만 치중해 병들고 지쳐가는 북한 주민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사라져가는 현실 앞에, 남측이 제의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출발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응답했으면 한다. 평화로운 한반도의 좋은 그림을 그리자는 남한의 성의 있는 노력에 북한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약'인 '평화'를 선사해야 한다.

70여 년간 본의 아니게 갈라진 두 강토에서 살아가는 두 나라 민족이 아닌 '한민족', 남북한 의료보건의 통합이 가져다 줄 민족구성원들의 생명의 길이를 과연 언제쯤 짚 수 있을까? 통일도 이제는 '마하속도'로 찾아올 때가 된 듯하다.

(사진자료: 연합뉴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일 한국은 농·임업 강국?

한반도의 총 면적은 약 22만km<sup>2</sup>. 이중 북한은 12만km<sup>2</sup>, 남한은 10만km<sup>2</sup>를 차지하고, 경지 면적은 북한이 2만km<sup>2</sup>, 남한이 1만6천km<sup>2</sup>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형과 기후 조건으로 보면 북한은 산지가 많고 기후가 낮아 임업에 적절하고, 남한은 평야와 강수량이 많아 논농사에 적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연료 확보를 위한 산림 훼손으로 귀한 임산 자원들을 잃어가고 있다는데요. 하루 빨리 남북한이 농업 기술을 합하고, 각 지형에 유리한 작물들을 심어 통일 한국산 토종 농·임산물을 풍부하게 생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한 농가수와 주요 작물, 농업형태 및 생산량 등을 통해 통일 한국의 농·임업을 전망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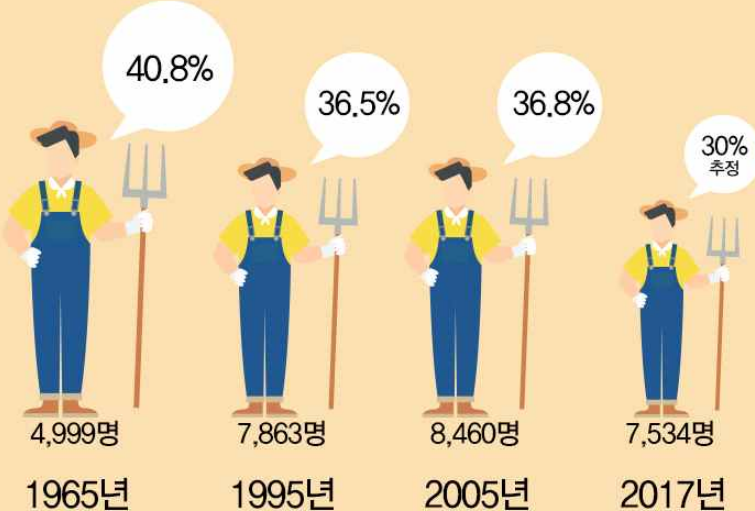
## 농가인구

남한 전체 인구의 55% → 5%로 감소  
 북한 전체 인구의 41% → 30%로 감소

### 남한



### 북한



※남한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영향으로 감소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1995년 대홍수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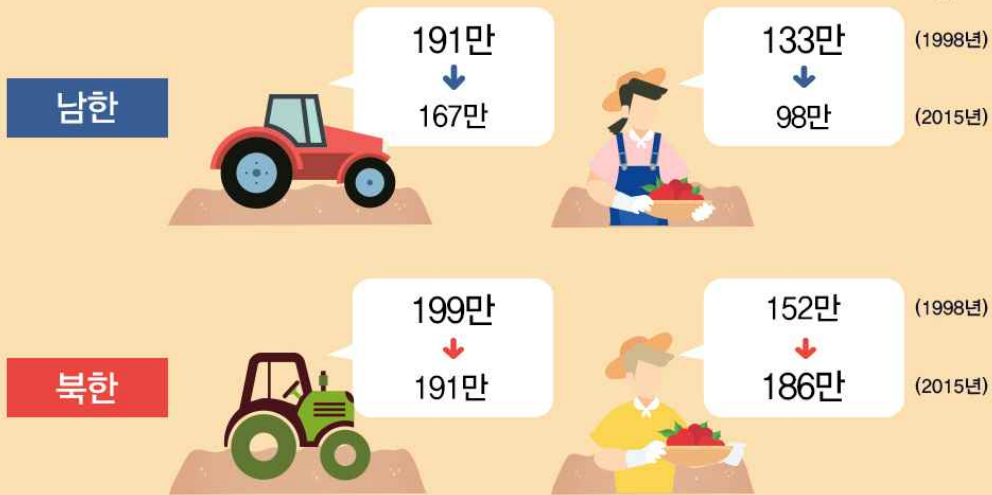
## 농경지 면적

1998년 경지면적에는 남북한 비슷  
2015년에는 경지 및 재배면적 모두 북한이 높아

### 경지면적

### 재배면적

※ 단위: ha



## 지형별 농업 형태

남한은 논 55%, 밭 45%

농·임업 고루 발달

북한은 논 30%, 밭 70%

산림 훼손으로 '다락밭 농사' 특화

	남한	북한
지형	논 55%, 밭 45%	논 30%, 밭 70%
기후	연평균 기온 12.5℃ 여름 최고 39.4℃ 겨울 최저 -17℃ 연평균 강수량 1,307.7mm	연평균 기온 8.5℃ 여름 최고 26.0℃ 겨울 최저 -10.7℃ 연평균 강수량 919.7mm
운영방식	개인농장이 대부분 (전업 또는 겸업농가)	국영농장(총자·종축·축산물·특수작물 생산) 또는 협동농장·종합농장(식량 및 농산물 생산) 운영으로 국가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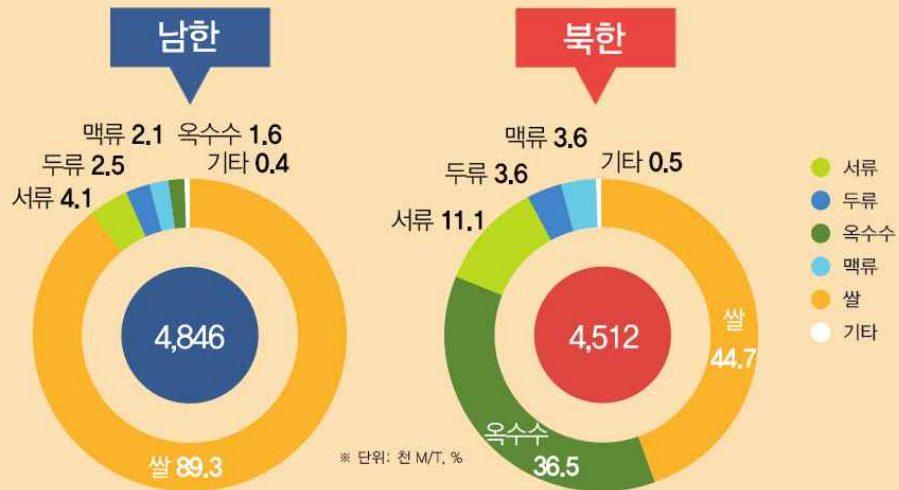




## 식량작물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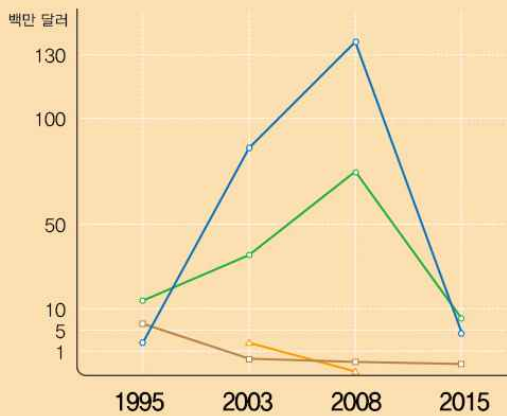
남한 쌀이 90%

북한 쌀 45%, 옥수수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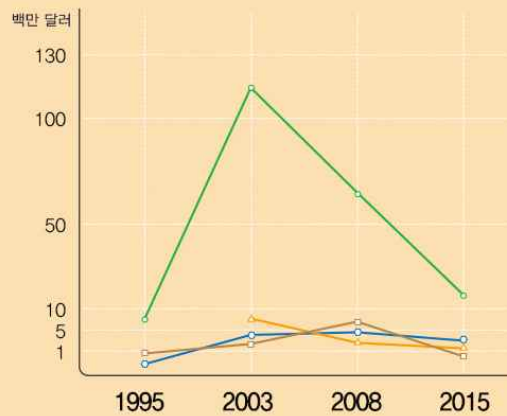
## 농림수산물 교역량

남북은 2008년 최대 교역량 기록



반입(북한→남한)

※ 단위: 천 달러



반출(남한→북한)

※ 단위: 천 달러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1995	13,506	-	6,003	2,810
2003	36,203	1,474	245	89,714
2008	70,653	19	183	137,058
2015	5,649	-	62	1,935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1995	8,879	-	273	154
2003	112,345	7,425	2,206	3,583
2008	65,516	1,760	6,278	4,685
2015	18,802	1,503	967	2,516



## 통일 한국의 농업 편익

자급자족으로 국내 물가 안정

농임업 기술 발달로 토종 작물 수출량 및 경제 활동 증가

농업편익  
**01**

남한 쌀 생산량을 늘려 북한으로 유통



농업편익  
**02**



북한 옥수수, 감자 등 고랭지 작물 남한에 유통

농업편익  
**03**

남북 농·임업 기술 합작으로 토종 농·임산물 생산, 수출 확대

※ 참고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남북한 농림수산업 통계

KFR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북한매체 보도동향, 북한의 농업

북한정보포털 농림수산업



# 낮에는 과장님, 밤에는 선생님?

## 전기기능장 김용남 씨의 멋진 이중생활

요즘 같이 더운 날 만국민의 피난처가 되는 곳이 있다. 백화점, 은행, 영화관 같은 대형 건물들이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이 큰 건물들이기 때문이다. 탈북민 김용남 씨는 이런 대형 건물의 냉난방과 전기 시스템을 관리하는 '전기기능장'이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전기기사학원 강사가 된다. 낮에는 관리 과장, 밤에는 직업훈련 교사가 되는 김용남 탈북민을 만나봤다.



### 브로커에서 탈북민이 된 용남 씨

사무실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빌딩 지하, 김용남 씨가 커다란 기계들을 점검하느라 여념이 없다. 층층마다 안전한 전력을 공급하고 건물 전체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용남 씨가 일하는 오피스텔에는 약 50여 개의 사무실이 있고, 건물을 사용하는 인구는 600여 명에 달한다.

용남 씨는 2007년 아내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북에서는 전기 용접기사로 8년간 일했는데, 그것만으론 먹고 살기가 어려워 장사를 했다. 당시 용남 씨는 돈이 되는 것은 뭐든 팔았다. 겨울에는 산토끼, 꿩, 노루, 조개, 명태, 갯 등을 팔았고, 여름에는 골동품을 비롯해 중국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구해다 팔았다. 그렇게 중국을 오가던 용남 씨는 북한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브로커 일을 했고, 용남 씨도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는 용남 씨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으로 보내줬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한국에 정착해 컴퓨터 교사로 일하게 된 탈북민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용남 씨에게 "한국에서는 컴퓨터를 꼭 알아야 한다"고 말해 6개월 동안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전산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여권이 나온 뒤에는 한동안 주중에는 중국에, 주말에는 한국에 머물렀다. 예전처럼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다 달라는 요청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번져 이내 그만두게 됐고, 용남 씨는 전기기사학원을 다니며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 실력과 의지를 어필하는 방법 '자격증'

용남 씨의 첫 직장은 백화점이었다. 2010년 2월 전기기능사로 입사해 초봉 135만원을 받았다. 주말마다 틈틈이 공부해 따둔 전기기능사 자격증 덕분이었다. 이후 용남 씨는 자격증 공부를 계속했다. 한국 사람들 틈에서 자신을 확실히 어필하는 방법은 자격증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직까진 탈북민보다 한국 사람을 선호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말로 저를 내보이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제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 거죠.”

용남 씨는 입사 1년 반 만에 ‘전기기사 면허’도 뒀다. 쉬면서 준비하는 사람도 1년 넘게 걸린다는 전기기사 시험을 직장생활을 하며 1년 반 만에 취득한 셈이다. 이에 친한 동료들은 그런 용남 씨의 노력을 인정해주었다. 하지만 월급 인상과 진급에서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때문에 몇 번은 큰 소리를 내며 싸우기도 했다. 그때마다 직속 상사였던 김병대 대리가 용남 씨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었고, 몇몇 어린 친구들은 용남 씨보다도 더 화를 내며 그를 위로해주기도 했다.



▲ 시설물관리실에서 업무 중인 김용남 씨

얼마 전 용남 씨는 첫 직장에서 인연을 맺었던 한 친구와 다시 같이 일하게 됐다. 전 직장보다 월급이 30만 원이나 적은데도 용남 씨에게 기술을 배우겠다고 따라 온 친구다. 그도 그럴 것이 용남 씨는 전기기사학원 직업훈련 교사이기 때문이다. 굳이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용남 씨 곁에 있다 보면 용남 씨가 아는 것만큼은 가르쳐주지 않겠냐는 것이 그 친구의 말이었다.

“생각해보면 좋은 사람들 덕분에 버텼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헤아려주고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그런 동료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직장생활에 적지 않은 위안이 돼요.”



▲ 유한공업고등학교에서 강연하는 김용남 씨



▲ 전기기사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용남 씨



## 📡 김용남 학생, 메인 강사로 초빙되다

용남 씨가 학원 강사로도 일하게 된 것은 그의 노력과 의지 덕분이었다. 현재 용남 씨가 일하는 학원은 그가 직장생활을 하기 전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다녔던 곳이다. 용남 씨는 이곳에서 전기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승강기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학원에서는 그런 용남 씨를 눈여겨보다 보조 강사를 제안했다.

물론 보조 강사 역시 '직업훈련 개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조건이 따랐다. 이에 용남 씨는 학원의 권유대로 교사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는 여섯 과목의 4년 차 메인 강사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용남 씨는 지금도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전기기술사'와 '소방시설물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만 20여 개이지만 강사로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한다. 백화점에서 작은 건물로 직장을 옮긴 것도 같은 이유였다. 정시 퇴근을 해야만 강의가 없는 날을 이용해 자격시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봄에는 다른 학원에서 제의를 받았어요. 기술전문학교인데 제가 회사 두 곳을 다니며 버는 만큼 월급을 줄 테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솔깃한 제안이긴 했는데, '전기기술사'를 따고 싶어서 거절했어요. 전문 강사가 되면 제 공부는 할 수 없거든요."



▲ 냉난방 시스템을 점검 중인 김용남 씨

## 📡 누군가의 이정표가 된다는 기쁨

용남 씨가 이토록 공부에 욕심을 내는 것은 언제나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삽질로 만 원을 버나, 책상에 앉아 만 원을 버나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만 원을 벌면서도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보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인드 때문인지 요즘 그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이 많다. 그래서 용남 씨는 하나센터와 일부 공업고등학교들을 방문해 자신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때마다 용남 씨가 강조하는 것은 "나만의 기술을 가져라"라는 것이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꿈은 자유이긴 하지만, 많은 탈북민과 학생들이 걸보기에 좋은 직업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요즘 발에 차이는 게 박사, 교수잖아요. 제 직업이 기술 쪽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기술은 터득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일단 자격을 갖게 되면 확실하고 안정적인데요. 기술이 있으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공구가방 하나만 있으면 출장 다니면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통일 후 용남 씨는 남한에 있는 전기기술을 북한으로 옮겨가 북한쪽 전기기술협회 회장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그때는 자신이 배워온 기술들을 북한 이웃들에게 가르쳐주며 남한처럼 편리하고 안전한 건물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다. 그때까지 용남 씨는 지금까지 밤에는 전기기능사, 밤에는 직업훈련 교사로 일하며 다른 누군가의 좋은 이정표가 되려고 한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슈 in 통일

이슈in통일은 최근 한 달간 주요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소식 중 이슈화 되었던 기사들을 모아 정리한 코너입니다.



## 대북 제재가 먹히지 않는 이유… “전세계 164개국 이 북과 교류”

미국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도 북한이 꿈쩍 않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북한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164개국과 여전히 외교관계를 지속해서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더보기](#)

## 한국일보

### ‘대북 운전석’ 각인시켰지만 갈 길이 멀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 외교 무대에 대북 주도권을 각인시켰다.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동안 공백이었던 정상 외교를 단기간에 복원한 성과로 꼽힌다.

[+더보기](#)



## 中, 文대통령 ‘베를린 구상’ 환영 “남북 대화 지지”

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인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면서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보기](#)



## “北, 생각보다 구매력 세다” 북중무역으로 본 북한 경제

북한의 경제 상황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북한의 구매력이 국제사회의 예상보다는 상당한 수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보기](#)



## 문화일보

### 北 가는 원유 '100만t 중 79t' 중국서

한·미·일 3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 이들의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보기](#)



### “北, 南 관계개선 행동으로 판단, 군사연습 중지해야”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더보기](#)



### 아프리카 곳곳에 건물 짓고 무기 수출하는 北 “짹짹한 수익”

아프리카 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나미비아의 수도 빈트후크에는 최근 수년간 초현대식 외관을 갖춘 국립역사박물관과 대통령궁, 국방부 청사, 군수품 공장 등이 잇따라 들어섰다.

[+더보기](#)



### 美 8군 사령관 “사드 철회 땀 한국인 1000만명 위험 노출”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육군 중장)은 11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 미군 사드를 철수할 경우 똑같은 방어를 위해 훨씬 많은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보기](#)

## 문화일보

### [뉴스와 시각] 文대통령의 4대 안보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치러낸 일련의 양자·다자외교 결과는 국민에게 안도와 우려를 동시에 안겨줬다. 그의 데뷔전은 ‘일본 전선 일보 후퇴’의 기록들로 채워져 있다.

[+더보기](#)



### “美, 北과 불법거래 중업체 수사” 광물·섬유 10개사 정조준(종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무역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측은 북한과의 위법거래 증거가 확보되면 금융 제재를 할 방침이다.

[+더보기](#)



### 국내 방송 출연 탈북여성, 北 선전매체 등장해 南 비난

국내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탈북여성 임지현이 북한이 선전 매체에 등장해 남쪽에서 공화국을 비방하라는 거짓말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보기](#)



### 北, 인구조사 비용 600만불 지원 요청... 정부, 긍정 검토

북한이 내년 인구주택 총조사(인구센서스)를 앞두고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 정부에 600만 달러의 비용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더보기](#)

## 문화일보

### “對北 군사옵션 어떤 것이든 가능” 외교적 해법 불발시 대비하는 美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 사령관이 북핵 문제에 대해 군사적 선택지가 실행 가능한 상태라고 밝혀 외교적 해법이 불발될 경우 군사적 옵션 선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더보기



### 정부, 회담 제안 통해 ‘남북연락채널’ 복원 노력

정부는 17일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안하면서 회신 채널을 특정해 남북간 연락 채널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보기

## dongA.com

### 北상류층은 ‘제재 무풍지대’ ... 100달러 뭉치돈 들고와 명품 쇼핑

북한 평양에서 근무한 서방 국가의 전직 외교관이 모란봉 구역에 있는 ‘북새상점’에 들어간 뒤 입을 다물지 못했다.

+더보기



### [文정부 5개년 국정] 전작권 전환시기, ‘임기내→조기 전환’으로 수정(종합)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전작권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현 정부 임기내’에서 ‘조기’ 전환으로 수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더보기

## 서울신문

### 김정은 “美와 평화협정 文정권 때가 절호 기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압박해 대화의 물꼬를 열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라고 지시했다.

+더보기



### 北, 탈북자 재입북 공작 강화 警, 소재불명 900명 추적

북한의 대남 공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탈북자 강모(41세) 씨는 보위성 지령을 받고 북한에 몰래 들어갔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더보기



### 유엔 “北, 최근 일일 식량 배급 400→300g 줄여”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의 1인당 하루 배급량을 400g에서 300g으로 줄였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유엔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더보기

## 한국일보

### 中, 美의 北 공격 대비해 접경지역 군사 준비 강화

미국이 중국의 역할을 거듭 요구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공격에 따른 정권 붕괴에 대비, 1,400여km에 달하는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준비태세강화에 나서 주목된다.

+더보기





## 北, '진전된 ICBM급' 기습 발사... 3천700km 치솟아(종합2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쏜 지 불과 24일 만에 이보다 성능이 향상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더보기](#)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리움으로 물들인 <향수>의 본향, 충북 옥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 정지용 <향수>



귀를 기울이고 오도카니 서 있었다. 여름이 한바탕 지나간 듯했다.  
지루하게 이어지던 장마가 끝나고 종일을 밤낮으로 달궈대던 별이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었다.  
무언가 서늘하고 그리운 것들이 떠올랐다. 몸에 새겨진 습관처럼 우리는 이 시간이 되면 어딘가로 돌아갈 곳을 떠올린다.  
큰 술을 걸어 한술밥을 나눠먹는 식구들이 기다릴 것 같고, 맨발을 벗고 걱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옛 친구를 만날 곳.  
정지용의 <향수>가 그려내는 고향이 위안이 되었던 것은 지치고 상처받은 채로 돌아가더라도  
넉넉히 나를 받아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꿈엔들 잊히지 않는 모두의 고향,  
정지용 생가와 향수100리길





옥천(沃川)은 '비옥한 물줄기'라는 의미다. 풍요로운 금강이 산모퉁이를 돌아 들판을 지난 뒤에, 대청호로 흘러든다. 산과 들, 강과 호수가 어우러져 어딜 가든 풍요롭고 넉넉하다. 그 물줄기의 일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라는 시어처럼 아직도 정지용 생가 주변을 흐르고 있다. 한의원이었던 지용의 옛집은 돌담이며 사립문이며 마당까지 당시와 흡사하게 재현되어 있다. 그가 도란도란 정겹게 살았던 고향은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놓은 듯 시 속에 온전히 담겨 있다.

그가 14세에 서울 휘문고보로 진학한 뒤, 일본 유학을 다녀오고 다시 서울에 정착했어도 고향은 그에게 늘 그리운 곳이었다. 모더니즘 시풍의 개척자로 누구보다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시를 썼던 정지용의 대표작이 토속적 정취 가득한 <향수>라는 점이 이채롭다. 그의 시에서 고향은 단순히 어린 시절 살붙이들과의 따뜻한 정이 있는 옛 추억에 그치지 않는다. "넓은 벌 동쪽 끝"은 그 누구의 고향까지도 품어내는 우리의 국토 전체,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이다. 순결한 그 땅을 "꿈에도 잊을 수 없다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후 정지용이 국토 순례를 한 뒤 쓴 1930년대 이후 기행문이나 시편에서도 국토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배어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향수>는 상실된 우리의 근본과 원류에 대한 물음이고 재확인이며 그것을 지켜내겠다는 선언이다.



▲ 정지용 문학관과 동상



▲ 정지용 생가 입구의 <향수> 시비



▲ 정지용 생가 인근에 조성된 향수 공원

정지용의 생가 주변은 특히 문인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매년 5월 '지용제가' 열리고 있고, 산책하며 돌아볼 만큼 가까운 거리에 '정지용 문학관'과 '향수 공원' 등 문화 공간이 모여 있다. 옥천역에서 시작해 금강변을 따라 정지용 생가까지 조성된 '향수100리길'은 자전거 라이딩으로도 유명하지만, 나무 데크를 따라 걷는 강변길은 눈부시고 유려해서 걸기에 좋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울창한 숲 그늘,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길 그 어느 풍경도 놓치지 가까운 금강의 한적함은 말 그대로 향수(鄉愁)에 젖게 만든다.





▲정지용의 생활공간이던 안채 복원 모습



▲금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향수100리길

## 옛 고향 물길을 따라 지줄대는 힐링 휴양지, 부소담악과 마로니에 숲

옥천 여행은 물길을 따라 정처 없이 흘러가더라도 결코 무리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접하게 된다. 또 다른 명소로 꼽히는 곳은 단연 대청호다. 금강이 자연이 만들어낸 진경(眞境)이라면 대청호는 인간사의 우연한 마주침이 빚어낸 비경(秘境)이다. 본디 이 산골은 매가 많아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매봉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골짜기를 흐르는 푸른 강물 위로 매가 날아가는 풍경은, 1980년 대청댐이 들어서면서 물 위에 바위산이 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본디 이곳의 풍수형국이 연화부소형(연꽃이 물에 뜬 모습)이라 마을 이름이 부소머리(부소부니, 부소무니)인데, 그 이름을 따와 부소무니 앞 물 위에 떠 있는 산이라 해서 부소담악(芙蓉潭岳)이 되었다고 한다. 대청호의 푸른 물결 위로 본디 마을의 앞산과 진산이었던 봉우리들이 섬처럼 솟아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부소담악의 역사는 채 40년이 못 되었다고 하나 물에 비친 바위산의 경치는 자못 그윽하여 지나는 이의 마음을 잡아 끈다.



▲대청호를 따라 섬처럼 솟은 부소담악

능선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돌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천천히 걸으며 사색에 잠기기에 더할 나위 없다. 시원스레 호수 주변을 걷던 발을 문득 멈춰 생각하게 된다. 과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물속에 잠겨 있을 눈과 발을 바라보았을 실랑민의 마음도 떠오른다. 문득 먼저 지나왔던 고향에 대한 향수가 이곳에 와서야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일인가. 너무 오래 떠나 있어서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조차 잊어가는지도 모른다.

예전에는 방학 때마다 시골 외갓집에서 수박도 잘라 나눠먹고 모깃불도 피워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정담을 나눌 때도 있었다지만, 세월이 많이 변해 그런 풍경도 향수를 일으키는 옛 추억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어쩌면 손달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고향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장천 저수지를 바라보는 마로니에 숲 캠핑지 풍경



최근 캠핑장이나 휴양지가 각광받는 건 어쩌면 현대인 마음의 고향의 기능을 숲과 물가의 풍경 좋은 곳에서의 휴식이 대신하고 있다. 옥천의 '마로니에 숲'은 장 찬저수지를 끼고 있어 물안개와 석양의 노을을 배경으로 여름에는 수변에서 민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겨울에는 빙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이다. 어우러지는 옛 고향 추억을 통해 힐링하는 셈. 곧 다가올 가을에는 캠핑장 내의 밤나무, 감나무, 호두나무의 유실수 수확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 누군가의 고향을 찾아 떠났다가 오히려 나의 고향을 찾은 것처럼 위로받는다. 언젠가 돌아가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평온한 풍경들. 그곳을 차마 꿈엔들 잊을 수 있을까.

## 바위에 새긴 그날의 역사, 문바위 동학혁명유적지



▲ 문바위굴을 수호신처럼 지키고 선 바위들

문바위굴의 좁은 마을길을 따라 그 흔적을 찾아갔을 때, 간간이 보이던 안내 표지판도 어느새 사라지고 빈 집이 드문드문 남아 있는 고요한 농촌 마을의 낯선 풍경뿐이었다. 하지만 우뚝 서 있는 바위들을 보니 풍경 또한 달라졌다. 이곳은 바위가 병풍 형상으로 둘러 쳐 있어 최상의 요새였다고 한다. 산도 강도 비틀러 흠어지고 역사가 상실되었을 때 실패할 줄 알면서도 결연히 몸을 일으킨 민중들의 성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쩌면 <항수>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박혀 있는 절절한 그리움의 원류는 그보다 한 세대 앞서 불꽃 같이 살았던 동학군에게 이어받은 슬픔이 아닐까, 그 슬픔이 금강의 줄기를 따라 오래도록 흘러 현재에 이른 것이 아닐까. 나라를 빼앗긴 백성의 슬픔이 그 어린 자식의 다시 어린 자식으로, 시대를 초월해 나의 가슴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만 같다.

텅 빈 공간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그리워한다. 무엇을 또 기억해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남겨야 하는가. 좁은 산길을 타고 오르는 도로는 산속으로 이어진다. 여기 마음 한 자락은 남겨두도록 한다. 지금의 흔적은 사라지더라도 또 마음은 머물러 있지 않겠는가. 먼 후일 누군가가 이 길을 지나는 날, 행여 그 시름 덜고 위로가 될 바람으로 남겨 될지도 모르니, 그러면 이 아름다운 풍광 뒤에 숨어 있던 애뜻한 추억이 피어날지니.

옥천은 금강변의 풍요로운 들판 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얼굴이 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옥천의 동쪽인 청산면 문암리 문바위굴에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형을 중심으로 전국의 동학도들이 집결하였다. 현재의 정읍인 옛 고부군에서 전봉준이 봉기를 일으킬 때, 당시 최시형은 이곳에서 '재기포령'을 내려 강원, 경상, 전라 등지의 동학군을 모았다. 문바위는 동학 교단의 주요 문제를 결정하던 동학의 중심이자 요새로, 현재는 최시형의 집터와 동학혁명군의 훈련터, 최시형의 아들 최봉주의 묘 등이 전해지고 있다. 당시 그들이 말을 매어두었던 버드나무 말뚝이 되살아나 무성한 버드나무 숲이 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기세가 대단했다고 한다.



▲ 동학농민운동 기념비와 기념공원

<글: 김혜진 / 사진: 김규성>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민주평통의 역할'

## 제21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에 많은 난제들이 주어졌다. 북한 핵 미사일 문제는 거의 정점에 이르렀고, 국내외적으로도 다양한 외교 및 안보 현안과 맞닥뜨렸다.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는 지난 7월 18~19일 문경STX 리조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민주평통의 역할'을 주제로 제21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적 접근 과제

토론회에는 정치, 외교, 안보, 언론,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30여 명이 함께 했다. 발제 및 토론은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제1세션은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제2세션은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사드문제를 비롯한 외교 난제는 물론, 한반도 주변도 국제적 정체기를 겪고 있다”며 “모두가 애써야 하는 시점인 만큼 남북이 평화라는 항구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평통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가감 없이 수렴하고 국민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적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황인성 사무처장

1세션 첫 번째 발제는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 대북·대외 정책’을,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가 ‘문재인 정부를 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전략 모색’에 관한 발제를 진행했다.

김용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는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적 접근에 대해, 전봉근 교수는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구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안보와 통일을 하나로 보느냐 분리해 보느냐에 대한 사안과, 북한이 수용할만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김용현 교수(동국대학교) 발제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통일도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쉬운 부분부터 접근해 평화적인 통일에 접근하고자 한다. 예컨대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소재로 보는 것이다.”

전봉근 교수(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발제

“과거 북핵 정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 결정은 안보환경 악화, 국내 정치적 필요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단계 목표로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구축’을 제시해 남북기 본합의서 내용을 계승, 실현해야 한다.”



### 1세션\_ 대북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



정낙근 수석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안보와 통일을 분리하지 않으면 통일문제는 진전이 없다. 안보는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푸는 것이고, 통일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구상의 목적은 타당하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차두현 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체제 인정, 경제적 보상 등의 유인책이 북한이 수용할 만한 협상조건인지 고려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선의를 기대하기보다 직접 제재 이탈의 증거를 찾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박종철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북한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평화 협력 정착이나 통일 여건 조성 등 대내적인 부분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 북한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위기 관리 매뉴얼과 대화 복원의 조건, 초기 단계에서 다뤄야 할 의제 등 입구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엽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남북관계에 집중해야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다. 과거의 위협은 제재였고, 현재의 위협은 평화체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고金正은이 갖고 있는 위협은 미래에 대한 것이다. 향후 체제 존속과 정권 연장을 보장해야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조성렬 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앞세운 이유는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를 낮춰 통일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미다. 평화로 안보와 통일에 대한 설 명이 가능하다. 또한 이산가족상봉만 제기하기 보다,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을 함께 제기하면 북한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고유한 교수 (동국대학교)

북한 핵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 기초해 핵을 인정하면서 공포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동안 속제가 누적돼 왔기 때문에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입기에 연연하지 말고 멀리 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





**김용현 교수 (정리)**

북한을 적극적인 행위자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북한 문제를 풀어 가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핵문제, 남북관계 모두 설득과 압박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봉근 교수 (정리)**

안보, 통일, 평화 3가지 핵심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해 공동 의견이 없으면 남남갈등이 계속된다.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한다. 북한 핵문제의 경우 CVID(북한의 핵개발폐기정책)는 장기적인 문제로 보더라도 핵 동결 정도라면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 민주평통은 자문건의 기능과 통일외교를 강화해야

'제2세션은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이 '대북정책 민간 거버넌스와 민주평통의 역할', 배기찬 전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이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에 대한 정책건의'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김종수 위원은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위해 기구를 조직, 구성해 성과를 창출하고 민주평통은 자문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배기찬 이사장은 역대 남북합의를 토대로 평화통일의 불가역적 노선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에서는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며, 별도의 조직 구성보다는 민주평통이 정부와 시민 사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 국민의 통일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강조됐다.



**김종수 위원(통일전문위원) 발제**

“통일문제는 민족 모두의 안위와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국민협약’ 추진에 있어서 사회적 협약 기구를 조직, 구성해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민주평통은 자문건의 기능 강화를 위해 건의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지역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 외교를 위해 해외 조직을 강화, 체계화해야 한다.”

**배기찬 이사장(통일코리아협동조합) 발제**

“미중 패권경쟁과 남북관계 악화, 국론 분열 등 엄혹한 외교안보 현실 속에서도 5천만 국민이 평화통일의 주체이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 4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과 7.4 성명을 비롯한 역대 남북합의를 토대로 평화와 통일의 불가역적 노선을 제시해야 한다.”



## 2세션\_ 민주평통의 역할 및 광복절 기념사 제언



**김민서 기자(세계일보)**

민주평통의 강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민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더욱 다양한 통일공감대 확산 방향이 필요하다. 8.15기념사는 북핵 문제 해법이나 남북관계 문제 해결 등 그동안 밝힌 구상 내용들을 구체화시킬 차례다.



**김영희 팀장(산업은행)**

광복절 기념사는 일관성, 수용성, 상호성을 갖고 접근했으면 한다. 중요한 부분을 일관성 있게 지시하되, 선언적인 것은 배제하고 북한이 수용 가능한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남북이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유은 교수(한양대학교)**

통일국민협약에 통일 개념에 대한 포괄적 상정이 필요하다. 최종단계는 통일이지만 그 전 단계는 '평화' 내지는 '평화 공존'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광복절 기념사는 대국민을 위한 기념사인 만큼 비판적이지 않고 국민 통합과 비전, 국민자긍심 고취 등을 제시해야 한다.

**김일기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그동안 대북제안은 북한 상대가 아니라 대내용으로 활용된 측면이 많았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것이 우선이다.



**김일한 연구교수(동국대 북한학연구소)**

헌법 개정 시 국회 개헌특위와 별도로 시민 개헌특위를 구성 제안해야 한다. 통일국민협약의 원칙과 기초는 민주평통 상임위에서 정하고, 그 원칙과 기초 아래 지역 협의회 차원에서 토론과 논의를 거치는 방법을 제안한다.

**김화순 연구위원(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민주평통은 시민의 동력을 담아낼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 상임위원 보다는 지역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상임위원들은 정책제안을 할 만한 역량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안영욱 사무처장(경기평화교육센터)**

광복절 기념사는 경제적 유인책이 아니라 위험을 감축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의 하에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줘야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되며,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기동 실장(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민주평통은 민화협과 같은 시민단체와 어떻게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해나갈지 준비가 필요하다. 광복절 기념사는 '국가주권의 회복', 촛불 혁명은 '국민주권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혁명을 관통하는 의미를 담을 필요가 있다.



**이수석 수석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지금까지 민주평통이 안보 위주의 스탠드를 가지고 활동했다면, 18기부터는 평화통일의 스탠드를 가지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 18기가 구성되면 민주평화통일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와 담론을 만들어 역사에 중첩되는 어려움들을 국민의 승리로 끌고 가야 한다.

**이정철 교수(숭실대학교)**

남북관계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사회협약을 제기한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평통은 정부와 가깝지 않은 여러 중요한 목소리들을 전달하는 장이 돼야 한다. 정책 자체보다는 정책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을 만드는 '컨셉 페이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효령 실장(한국국방연구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안에 핵문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분리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 국가들과의 주도권보다는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주체가 한국이나 북한이나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전봉근 교수(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통일국민협약은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구체적인 통일한국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통일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콘셉트 마련도 필요하다.



**한만길 교수(한국교육개발원)**

북한에 대한 제안도 필요하지만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합의와 지지 등 대국민 호소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한 동계 올림픽 참가 등 남북관계 변화가 있어야 국민들의 통일의식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있을 것이다.



**차두현 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는데 협약 자체를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불필요하다. 민주평통은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는 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판적인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



**진희관 교수(인제대학교)**

민주평통은 지방 통일공감대 확산과 남북교류협력의 지방분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따라서 광복절 기념사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재표명과 남북사업의 지방분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조정훈 기자(동일뉴스)**

7.4 성명, 6.15 선언, 10.4 선언을 구체화시켜 언급하는 것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방적인 제의 보다는 특사 회담 등 정교한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민주평통 분과위원회를 북한 조직과 맞춤형으로 조직해 각 채널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전현준 원장(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남북대화, 통일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핵 폐기 전략'이 아니라 '핵 불사용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평통은 운전자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며 중립적인 태도로 임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통일편익과 평화 교육이 필요하다.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경제, 군사 분야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이룬 북한을 인정하고, 이런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국민협약은 방대한 의제, 주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갈등 수준을 낮추기 위해 핵심 갈등요소를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민주평통 역할이 중요하다.



**이호철 교수(인천대학교)**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비핵화를 실현할 첫 번째 자세다. 광복절 기념사는 남북이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분단해소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를 써나가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실현을 위해 동북아 안보 협력 회의를 제안할 필요도 있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꿈과 끼로 뚝뚝 뭉친 청소년 100인

## ‘2017 고등학생 통일 골든벨’ 결선을 뜨겁게 달구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KBS 도전 역사·통일 골든벨’ 최종 결선이 7월 23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다. 지난 5, 6월 예선전을 통과해 결선에 진출하게 된 100명의 고등학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두꺼운 역사책을 들여다보며 의미심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전국 192개 시·군과 미국, 중국, 프랑스 등 해외 21개 지역 예선을 거쳐 올라온 역사·통일 브레인들의 경쟁한 대결 현장을 전한다. 이날 최종 결선대회는 KBS ‘도전 역사·통일 골든벨’ 제작팀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본 방송은 8월 13일 방영된다.



### 떨어져도 괜찮아, 우린 꿈이 있잖아

골든벨 결선이 있던 일요일 아침, 행사 현장은 KBS 방송팀들의 발걸음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행사 세트장과 방송 기기들을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다. 그사이 학생들은 든든한 식사를 마치고 점검이 완료된 세트장 안으로 입장했다. 보드판을 든 학생들의 뒷모습에서 은근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어느새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오승원, 박소현 아나운서. 사회자석에 자리한 박소현 아나운서가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을 외치며 역사·통일 골든벨의 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 문제는 가벼운 몸 풀기로 신채호의 「독사신문」 중 ‘국가의 역사는 ○○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는 내용의 빈칸을 맞는 문제가 출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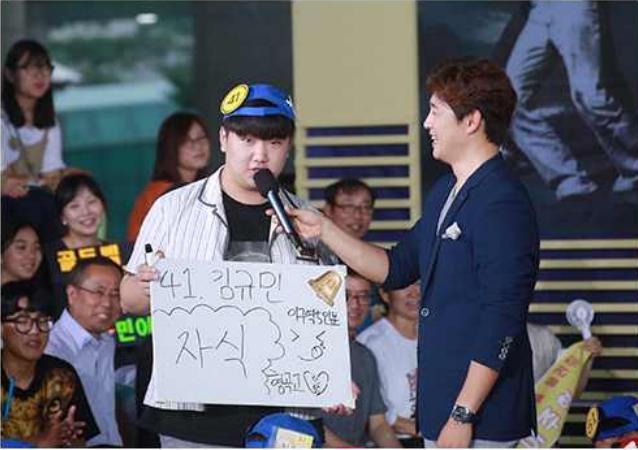


▲ 도전 역사 통일 골든벨 퀴즈를 풀고 있는 학생들



그런데 뜻밖에 오답자 3명이 나왔다. 오승원 아나운서는 답안을 ‘자식’이라고 쓴 41번 김규민 학생에게 다가가 “너무 빨리 떨어져 아쉽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규민 학생은 “골든벨 진출권도 장기자랑으로 얻어서 괜찮다”며 예선에서 선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보여줬다.

한편 ‘민족’과 헛갈려 답안을 ‘국민’이라고 쓴 5번 황은서 학생은 보드판에 자신을 ‘황은서 아나운서’라고 소개해 도전 골든벨의 오프닝을 남북한 아나운서 버전으로 보여줘 친구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 성대모사 개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41번 김규민 학생



▲ 남북한 아나운서 버전으로 골든벨 오프닝을 선보이는 5번 황은서 학생

##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짱이죠?

조선시대 미식이 허균이 서술한 해산물을 맞히는 5번 문제에서는 오답자가 속출했다. ‘크기는 강아지만하고 다리는 큰 대나무만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대개’와 비슷한 ‘가재’를 써내 탈락했다.

다리가 길다는 설명에 오징어나 문어를 적어낸 학생들도 있었다. 특히 43번 정재운 학생은 ‘과메기’를 써내 큰 웃음을 주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수준급의 춤 실력을 보여줘 친구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객석에 있던 가족 응원단들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 문제를 출제 하는 윤주경 독립기념관 관장



▲ 패자부활전 게임에서 전원 부활의 기회를 얻은 학생들

광해군이 재건하려 했던 두 나라를 묻는 문제에서도 대역섯 명의 학생들이 떨어졌다. 정답은 ‘명나라와 청나라’였는데 ‘금나라와 명나라’라고 쓴 학생들이 더러 있었다. 그중 22번 최근호 학생은 보드판에 “대한민국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써내 눈길을 끌었는데, 사회자의 인터뷰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국가유공자”라고 밝혀 월남전 참전용사이신 할아버지를 직접 무대로 모시기도 했다.

## 친구야 죽도록 뛰자, 부활권이 눈앞에 있어

2부에서는 패자부활전이 진행됐다. 1부 본선에서 남은 7명의 학생들을 제외한 93명의 학생들이 두 사람씩 다리를 묶고 허들을 넘어 바구니에 공을 빨리 넣으면 부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임이었다. 이에 총 3팀의 친구들이 도전해 전원 부활의 기회를 얻었고, 1부 본선을 통과한 7명의 학생들에게는 13번 문제부터 35번 문제까지 쓸 수 있는 1개의 부활권 ‘별 머리띠’가 주어졌다.



2부 결선 첫 번째 문제는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유주경 독립기념관 관장이 직접 출제했다.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창간한 ‘독립신문’을 묻는 문제였는데 ‘대한일보’, ‘대한매일일보’라고 쓴 4명의 학생들이 떨어졌다. LA에서 온 12번 이정환 학생은 ‘Flintridge Outlook’이라는 오답을 써내기도 했다.



▲ 역사 선생님을 재현하는 25번 양승태 학생



▲ 통일을 주제로 즉흥 랩을 선보이는 26번 배준호 학생

급진적 폭력주의의 다른 명칭을 묻는 14번 문제에서는 이날 최다 오답자가 나왔다. 많은 학생들이 ‘민족주의’, ‘공산주의’를 써냈기 때문이다. 보드판에 자신을 ‘쇼미더 골든벨’이라고 소개한 26번 배준호 학생은 ‘의혈단’이라는 오답을 썼는데, 사회자가 개인기를 주문하자 즉흥적으로 작사한 통일랩을 선보였다.

결선의 두 번째 위기는 21번 문제에서 한 번 더 찾아왔다. 김알지, 석탈해, 김수로, 박혁거세 중 알에서 태어나지 않은 왕의 이름을 묻는 문제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마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사회자는 오랫동안 답을 적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고 “이름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는 힌트를 줬지만, 무려 14명의 학생들이 우르르 떨어졌고, 이때 탈락한 25번 양승태 학생은 자신의 꿈인 역사 선생님을 재현하며 함께 떨어진 친구들을 위로해주기도 했다.



▲ 걸그룹 ‘우주소녀’의 공연 무대

## 골든벨도 좋지만, 우주소녀는 더 좋아

30번째 문제로 진입하면서 탈락자가 점점 늘었다. 그리고 10명의 학생만이 남은 상황에서는 독도 지킴이로 알려진 서경덕 교수가 영상문제를 출제해 2명이 떨어지고 8명이 남게 됐다.

‘동국통감’, ‘자치통감’에 들어가는 ‘감’자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는 80번 이동희 학생이 “한자 ‘鑑’은 ‘비추어 보다’, ‘성찰하다’는 뜻의 ‘거울 감’자를 뜻한다”며 “동국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동쪽에 있었던 데서 유래한 말”이라고 설명해주기도 했다.

태극기의 ‘건곤감리’ 뜻을 묻는 문제에서는 6명이 탈락해 최후의 2인만이 남았다. 건곤감리는 ‘하늘, 땅, 물, 불’을 뜻하는데 ‘바람’과 헷갈린 학생들이 많은 듯했다. 이때 남은 두 명의 학생은 21번 김민재 학생과 96번 김민우 학생이었는데, 두 학생에게는 신동엽의 시에서 세 개의 연도가 뜻하는 사건을 맞추는 문제가 주어졌다.





▲ 최후의 2인 대결 중인 21번 김민재 학생과 96번 김민우 학생

그런데 답판을 든 두 학생의 모습에 방청객이 술렁거렸다. 두 친구 모두 '4.19혁명'과 '3.1운동'까지는 동일하게 적었는데 나머지 한 개의 답이 달랐기 때문이다. 김민재 학생은 '동학농민운동'을 김민우 학생은 '을미사변'을 적었는데, 사회자가 "자신의 답이 왜 정답인지 설명해보라"고 묻자 김민재 학생이 자신 있게 설명했다.

이에 김민우 학생은 자신이 오답을 쓴 것 같으며 탈락을 예상했고, 정답 확인 후 김민재 학생이 이날 최후의 1인이 됐다. 최후의 1인이 된 민재 학생이 골든벨 퀴즈를 기다리는 동안은 '우주소녀'의 공연이 이어졌다. 긴 열전에 지쳐있던 학생들은 재충전의 시간이라도 갖는 듯 환호성을 질렀고, 최후의 1인이 된 김민재 학생에게는 우주소녀의 멤버가 직접 사인CD를 전해주어 부러움을 샀다.



▲ 최후의 1인에게 문제 출제 하는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



▲ 골든벨로 가는 두 번째 문제 답안으로 '두문분출'을 쓴 김민재 학생

## 역사를 바로 세워 갈등을 없애는 사람

우주소녀의 무대가 끝나고 드디어 김민재 학생이 골든벨로 가는 다섯 문제에 도전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이날 행사를 주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황인성 사무처장이 제출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우리 독립선열들이 피땀으로 나라를 되찾은 그날 허리 잘린 한반도를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며 "지난 70여 년간 우리 민족은 서로를 반목하며 살아왔지만,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합쳐 평화로운 한반도, 한겨레의 꿈을 실현하는 날을 앞당겨야 한다"는 인사말을 전하고 곧바로 '독일 통일의 아버지'를 묻는 문제를 냈다.

김민재 학생은 문제를 다 듣기도 전에 정답을 적어내며 "전 세계를 통틀어 평화적 통일을 이룬 나라가 독일이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 번째 문제까지 어려움 없이 맞힌 민재 학생은 행운의 '해외 어학연수권'을 따냈다.



하지만 골든벨을 올리는 마지막 문제에서는 민재 학생의 고민이 깊어졌다. 만해 한용운의 조선독립서에 들어가는 단어 두 개를 묻는 문제였는데 이때 '자유'와 '평화'가 아닌 '자유'와 '평등'을 적어내 아쉽게 떨어지고 말았다. 민재 학생은 아쉬움에 얼굴을 두 손에 묻었고, 이내 친구들이 달려와 민재를 들어 올리며 위로와 응원을 전했다.

대회를 마무리하던 오승원 아나운서는 이날 최선을 다해준 민재 학생에게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었다. 그러자 민재는 “우리나라가 지역갈등이나 세대갈등이 많은 이유는 앞에 있던 사건들이 뒤틀려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 뚜렷한 꿈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과거사를 바로 잡고 사회를 통합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해 감동을 자아냈다.

민재 어머니는 “아들이 이렇게 잘할 줄 모르고 플랜카드도 일부러 안 만들어 왔는데 미안하다”며 “민재가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역사공부가 자기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 대견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 미니인터뷰

“역사지리 연구가가 꿈입니다”



**우성재 학생(제주 오현고등학교)**

오늘 골든벨에 참여하기 위해 역사부도를 비롯해 관련 책들을 공부했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역사는 지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미래에 역사지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통일 골든벨에 참여한 것만으로 영광이에요”



**권민숙 어머니, 이견우 학생**

**(중국 칭다오 위해중세한국국제학교)**

아들이 예선에서 1등 했다는 연락을 받고 대견하기도 하고 기뻐요.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본인은 배우는 마음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권민숙)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공부가 정치외교학인데, 오늘 골든벨이 역사·통일 골든벨인 만큼 저한테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견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입니다”



**김영민, 이석영, 권민재(충남 예산고등학교)**

그동안 역사통일 골든벨에 열심히 참여해 학생 3명이 결선에 진출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 뿌듯합니다. (정우식 교감선생님) 빨리 통일이 돼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복지도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영)

통일한국 행복이네

20XX년 남북한이 하나 된가상의 대한민국,  
다복한 행복이네 가족 3대의 일상을 통해 통일한국의 희망찬 이야기를 미리 만나봅니다.

## 통일한국의 8.15광복 횡단열차 페스티벌

글.김혜진/그림.이택중













# 남과 북, 그리고 세계를 잇는 통일을 생각하다

## 해외 동포 청소년들의 역사·통일 견학

역사·통일 골든벨 본선 진출권을 얻는 해외 동포 청소년들이 7월 20일 서울 사무처에 모였다.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먼 곳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 역사와 분단현실,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서울에서 강화까지 1박2일간 진행된 해외 동포 청소년들의 한국 견학 이야기를 전한다.



▲도전 역사·통일 골든벨 결선에 진출하는 해외 동포 청소년들

### 서로의 다름을 공유, 소통하는 미래의 주역들

해외 동포 청소년들의 한국 견학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첫 날은 황인성 사무처장과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저녁에는 가볍게 한강유람선을, 둘째 날은 강화평화전망대부터 강화전쟁박물관, 갑곶돈대에서 한국 분단 역사를 체험한 다음 늦은 오후에는 KBS방송국 견학과 함께 서울 남산에 올라 시내를 구경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황인성 사무처장이 남북 분단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에 박현우 학생(중국 상해한국국제학교)은 “동양사학 교수가 꿈인데, 오늘 세계를 배경으로 한 한국의 분단 역사를 배우게 돼 유익했다”며 “골든벨 결선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통일을 하려면 우리가 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됐는지를 고민하고, 동시에 70년 이상 다르게 살아온 것을 서로 인정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세계 각국에 살며 여러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여러 분들이 미래의 좋은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선사·고대관부터 중·근세관, 특별전을 관람하며 우리나라 역사 전반에 관한 해설을 들었다. 이날 김영주 학생(일본 동경한국학교)은 “작년에는 일본 도쿄박물관에서 반가사유상 합작을 봤는데, 한국에서 다시 보니 더욱 반갑다”며 “외교관이 돼서 한일관계를 회복하고 통일에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황인성 사무처장이 해외 동포 청소년들에게 한국 분단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다





▲ 갑곶돈대 포구장전식화포를 보며 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학생들



▲ 강화평화전망대 망원경으로 북한 마을을 바라보는 학생들

## 전쟁과 분단의 흔적 강화도를 탐방하다

둘째 날에는 아침 일찍 강화평화전망대로 향했다. 강화평화전망대 3층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너머로 북한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아쉽게도 이날은 날씨가 흐려 북한의 세세한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2층 전시실에서는 강화 지역의 국방체험과 통일정책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남북의 분단 상황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강화전쟁박물관에서는 1679년 축조된 '갑곶돈대'와 대포 8문, 그리고 박물관 안에 전시된 전쟁 유물들을 살펴봤다. 갑곶돈대는 몽고와의 전쟁에서 강화해협을 지키던 요새인데, 삼국시대 때 강화를 '갑비고차(甲比古次)'라고 부르면서 갑곶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 KBS방송국 견학 중 골든벨 담당 프로듀서의 설명을 듣는 학생들

늦은 오후에는 학생들이 줄곧 기다려온 KBS방송국을 견학했다. 특히 십대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뮤직뱅크'의 녹화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날은 걸그룹 '우주소녀'와 신인 아이돌 '핫샷', '업텐션' 등의 무대를 볼 수 있었다. 생생한 녹화 현장에 푹 빠져 있던 이승민 학생(베트남 하노이국제학교)은 "1년 만에 한국에 온 것도 기쁘는데, 꿈도 못 꿀 '뮤직뱅크'를 볼 수 있어서 기쁘다"며 "하노이에 있는 친구들이 응원하고 있는데 골든벨에서 빨리 떨어지더라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코스인 남산에서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쉬는 시간을 가졌다. 친구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더위를 식히던 안지윤 학생(중국 동관시한림실험학교)은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말년 병장인데, 골든벨에 출전하는 좋은 기회를 얻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며 "대학에서는 심리상담을 전공해 사람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다독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활짝 웃었다.



# 민주평통 통일활동 소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외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통일문화 확산



▲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기탁(제주 서귀포시협의회)



◀ 대구광역시청 감사패 수여식(대구지역회의)  
▼ 통일 인재 장학 기금 기탁(부산 영도구협의회)



제주 서귀포시협의회(협의회장 이경용)는 7월 3일 이중환 서귀포시장과 허법률 부시장, 양지선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이사장에게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을 기탁했다. 대구지역회의(부의장 박규하)는 7월 3일 제17기 대구지역 운영위원장들에게 대구광역시가 감사패를 수여했다. 대행기관장인 권영진 시장은 지난 2년간 통일에 대한 국론결집과 평화통일을 향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준 그간의 노고를 감사, 격려한다고 전했다. 부산 영도구협의회(회장 김용민)는 7월 13일 (재)행복영도장학회를 통해 영도의 통일 미래 일꾼이자 학업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게 '통일 인재 장학 기금'을 기탁했다.

## 통일미래세대 육성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종호)는 7월 12일 충주상업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 두 번째 교실을 열었다. 이날 강의는 유현주 탈북강사가 '북한 주민들의 실상과 문화'에 대해 들려주었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북한 사찰음식의 절제된 아름다움, 연잎쌈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고 온 세상의 화평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든다는 사찰음식은 불교의 종교음식을 넘어서 채소를 중심으로 만들어낸 음식문화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최근 남한에서는 절에서 즐겨먹는 쌈밥, 채소 초회, 비빔국수 등이 웰빙 바람을 타고 친환경 건강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북한의 사찰음식 또한 식욕을 멀리하고 절제하고자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조리한다.

더불어 감자, 옥수수, 메밀 등 북한지역에서 주로 제배하는 식재료를 활용한다.

북한의 사찰음식 중에서도 이색 요리로 손꼽히는 연잎쌈에 감칠맛을 더해줄 소고기를 넣어 만들어보자.



## 요리재료

연잎 5장, 소고기 100g, 미나리 한 단, 대파 한 대, 당근 반 개, 느타리버섯 50g, 숙주나물 100g  
간장양념 : 간장 3큰 술, 참기름 2큰 술, 다진 마늘 1큰 술

### Step 1



소고기는 잘게 조각내고  
당근은 가늘게 채썰어준다.

### Step 2



소고기와 당근에 간장양념을 넣고  
프라이팬에 볶아준다.



### Step 3



숙주나물, 미나리, 버섯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준다.

### Step 4



데친 채소를 간장양념에 무쳐 나물로 만든다.

### Step 5



연잎은 데쳐 물에 담가놓았다가 다진 파와 간장양념에 재워준다.

### Step 6



모든 속 재료를 한데 섞어주고 연잎 위에 올려 말아준 뒤 썰어내면 완성.

요리연구가.이정은

##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북한의 연꽃

불교에서는 연꽃을 귀하게 여기기에 연잎을 활용한 음식이 발달한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연잎은 물을 튕겨내는 성질이 있어 어느 정도 빗물이 차면 아래로 떨어뜨리고, 흙탕물이 묻지도 않는다. 이런 특징 덕에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하여 부처의 자비와 지혜를 상징해왔다.

이처럼 연꽃을 활용한 사례는 북한의 여러 유물들에서도 나타나는데, 고구려 시대의 벽화고분으로 유명한 북한 국보 제28호 '안악 3호분'에도 연꽃이 등장할 정도다. 더불어 북에서는 함경남도 이원읍의 이원연꽃, 단천시의 두연못연꽃, 평안북도 피현군의 성동연꽃 등 곳곳에 위치한 연꽃군락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행시 당선작



민족의 아픔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주는 기쁨, 받는 기쁨을 당연하게 누리는 하나된 나라  
 평범하게 친구 집을 찾아가듯 모든 곳을 누빌 수 있는 하나된 나라  
 화합하고 함께 공생하는 나라  
 통하는 정을 끊어내지 않고  
 일생을 그리움과 통한의 눈물로 살지 않고  
 자유롭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세상  
 문명이 하나였듯이  
 회의적인 생각은 그만하고  
 의기투합하여 통일을 이루는 그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현 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8기는 더욱 할일이 많을 것 같아요.  
 주한미군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평시, 북의 도발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같은 큰일보다는,  
 화목함이 유지되는 병영문화 같은 세심한 곳에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이 한층 더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지만,  
 일회일비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어느덧 통일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18기 자문회의!!  
 회의록 적혀질 이번 18기의 다양한 활동들이  
 의미있는, 통일로 가는 또 한걸음이 되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꼭지버 님)



민주평등이 설립된 지 어언 30년, 서른 해가 다 되어 갑니다.  
 주인이 선출한 지역대표를 비롯, 각계각층의 국민들로 구성된 기구로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화해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통일로 가기 위한 길의 촉매와 이니셔티브가 되어야 할 민주평등!  
 일반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알리고  
 자문위원들은 미래 통일리더로서 역량을 키움으로써  
 문재인정부 통일정책의 핵심자문기구로 거듭나시길 응원합니다.  
 회합, 대화, 소통을 통해 남북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 힘찬 행보와 국민의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블랙비트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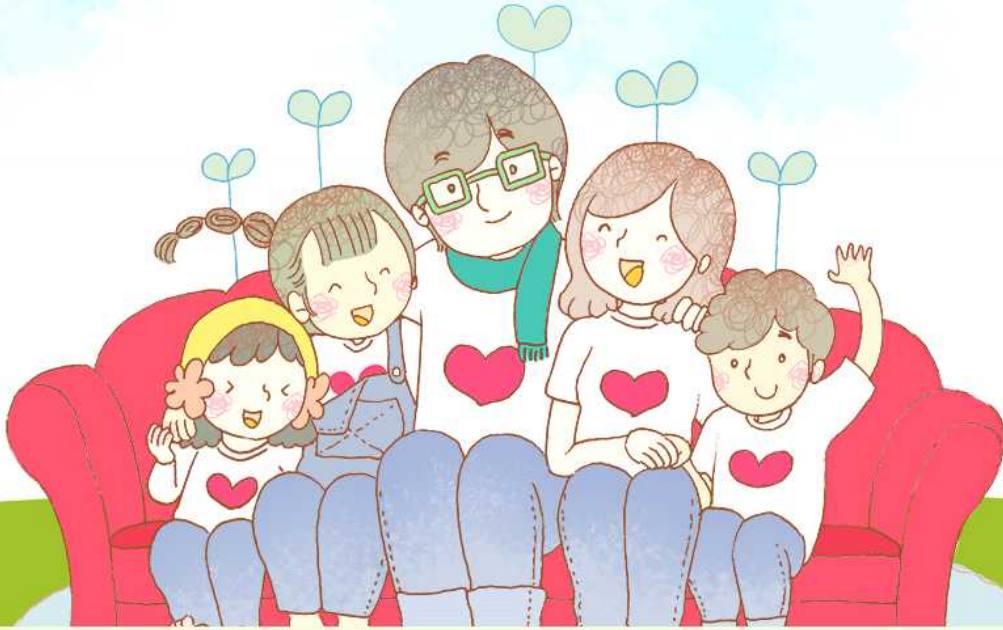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의 18기 출발  
 주인 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평화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화해 무드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통합 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일도양단한다는 마음가짐과  
 자강불식하는 자세로써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에 부응하여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시어  
 의기충천 된 모습들 보여주세요.  
 (라일구 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새로운 런칭과 힘찬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주권국가로서 민주적 국가수호와 함께 민주 통일을 건강하게 이룩하여  
 평화로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국가건설을 위한 건강한 소통과 자문으로 아름다운 성업과 건업을  
 이루어 통일 조국의 앞날을 앞당기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피날레의 서막 첫 시작을 응원합니다.  
 통일한국의 비상을 위한 준비와 정보 다양한 콘텐츠로  
 일상 속 통일이 스며들게 건강한 노력과 역할을 당부합니다.  
 자연스런 통일국가로 한 단계 도약해서  
 문을 열고 민심을 모아 대한민국의 하나된 동력으로  
 회향하는 국가  
 의로운 통일한국 염원합니다. 18길 출발을 응원합니다!!  
 (김정옥 님)



# 행복한 통일 '복날 가족사진'

## 이벤트 당선작



집 앞 동네에서 함께 한 남매예요.  
4살 차이지만 서로 챙겨주고 사랑하는  
두 아이들이 최고네요

서미영 님



민주평통자문회의 파이팅!

현승준 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추억을 담은 우리가족 이순임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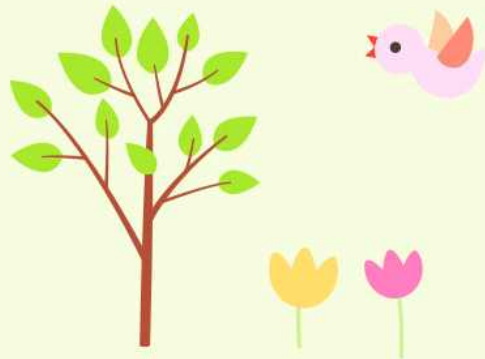
조식 뷔페를 먹고 후식으로 하얀 커피 잔을 들고 있는 우리가족들~~ 커피 향과 부드러운 맛이 끝내줬답니다.

한민서 님



항상 붙어 다니는 겹쌍둥이 두 아들과 딸 늘 같이 다닙니다. 기쁨도 두 배 행복도 두 배 가까운 근교 여름 꽃 나들이를 나갔답니다~~

김은숙 님



# 2017년 9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몇 기'일까요?

접수기간 2017년 8월 10일 ~ 9월 3일까지



## ◆ 참여방법 안내 ◆

응모하기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열 분께 4천 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교환권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제〇〇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〇〇에 들어갈 '숫자' 댓글로 남기기
- 접수기간** 2017년 8월 10일 ~ 9월 3일까지
- 상 품** 모바일 커피 교환권(4천 원 상당)





## 북한말 퀴즈

# 다음 중 '북한말-남한말' 연결이 잘못된 것은?

접수기간 2017년 8월 10일 ~ 9월 3일까지



- ① 대포쟁이 - 거짓말쟁이 **힌트**
- ② 짚까닥대다 - 짚랑거리다 **힌트**
- ③ 남새 - 채소 **힌트**
- ④ 살결물 - 화장수 **힌트**

## 참여방법 안내

응모하기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열 분께 모바일 문화상품권 5천원 권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정답 댓글로 남기기
- 접수기간** 2017년 8월 10일 ~ 9월 3일까지
- 상 품** 모바일 문화상품권 5천원권 10명

문화상품권  
5,000



축하합니다!

# e 행복한 통일 이벤트 당선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복날 인증샷 이벤트

닉네임	이메일 주소
서미영	**23smy@naver.com
현승준	**un79068@naver.com
이순임	**m4926@naver.com
한민서	**3185@hanmail.net
김은숙	**sh47@naver.com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행시 짓기 이벤트

닉네임	이메일 주소
박지현	**hsien@naver.com
꼭지버	**okzzibu1@naver.com
블랙비트	**ngton@naver.com
라일구	**u1975@naver.com
김정옥	**sh47@naver.com





### 웹진 만족도 조사 이벤트

휴대폰 번호	휴대폰 번호
010-**-17-3550	010-**-20-0084
010-**-33-7044	010-**-70-5563
010-**-76-0097	010-**-50-4437
010-**-60-0350	01-0**-40-2143
010-**-33-7345	010-**-61-5104
010-**-39-7748	010-**-85-6097
010-**-79-9439	010-**-88-0856
010-**-49-6207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